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11. 2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요 령

- 영국, 하마스 지원 혐의로 현직 경찰관 체포
 - 11.13 언론은 영국 남서부의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찰관이 온라인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*를 지원한 혐의로 경찰 구금시설로 압송 되었으며, 현재 해당인원의 차량과 디지털 장치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
 - *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축출 및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,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EU('03.9)가 테러단체로 지정
- 러시아, 주요 발전소 표적으로 삼은 테러 음모 저지
 - 11.13 언론은 러시아 연방 보안국(FSB)이 親우크라이나 테러 조직과 연계하여 군수시설과 발전소 등을 표적으로 테러를 계획한 자국민을 체포 후 구금했으며, 同人은 테러와 관련된 정보 공유를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였다고 보도
 - * 러시아 형법에 의하면 테러 시도는 최대 징역 15년 선고가 가능하다고 부언

미 주

- 페루, APEC 정상회의 개막 강화 조치
 - 11.14 언론은 제31차 APEC 정상회의(11.10~11.16) 개막을 앞두고 페루에서는 경계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이달 말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내려 총 13,000여명의 치안유지 인원을 투입했다고 보도
 - ※ 페루정부는 11.14~16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며 韓·美·中 등 21개 회원국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부언
- 브라질, 대법원 주변에서 폭발물을 통한 두차례 폭발 발생
 - 11.13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남성 1명이 주변 연방의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폭발시킨 뒤 대법원 청사에 들어가려다 자폭했으며, 현지 당국은 同 용의자의 단독 소행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
 - ※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지난 대선 이후 가짜뉴스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하며 논란에 중심에 있으며 「보우소나루」 前 대통령 지지자들은 보복하겠다고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부언

중 동

○ 헤즈볼라,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대변인 사망

- 11.18 이스라엘軍은 전날 오후부터 이틀간 레바논 약 200여 곳에 폭격을 가하였다고 발표했으며, 언론은 베이루트에 가해진 공습으로 헤즈볼라 대변인 「무함마드 아피프」가 사망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레바논 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을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헤즈볼라·하마스에 대한 군사 작전을 지속 중이라 부언

○ 팔레스타인, 가자지구 이스라엘 공습으로 111명 사망

- 11.18 언론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지역별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어린이를 포함해 주말동안 111명이 사망했으며, 「프란치스코」 교황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집단학살에 해당하는지 국제사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
 - ※ 외신은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협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가자지구 내 집단 학살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○ 韓 경찰, '야탑역 살인 예고'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

- 11.17 언론은 '야탑역 살인 예고' 관련 자작극을 벌인 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해 경찰은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2주 가량 투입된 인력(529명) 및 장비 사용 관련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 보도
 - ※ 현재까지 살인 예고 글 관련 민사 소송은 3건이 있으며, 112에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5년간 3건이 있었다고 부언

○ 中, 사회불만으로 인한 '교내 묻지마 칼부림' 25명 사상

- 11.17 언론은 중국 동부 장쑤성 이싱市 한 대학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졸업실패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보도
 - ※ 중국은 엄격한 통신망 관리, 총기관리법 등 폭력범죄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은 곳으로 스스로 자부하였으나, 9월부터 매달 '묻지마 범죄'가 있다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

파키스탄 주재 中國 영사관 총격테러

- '18.11.23 파키스탄 카라치 주재 中國 영사관에서 테러범 3명이 총기테러를 자행, 7명이 사망
 - 테러범은 폭발물을 탑재한 차량으로 영사관에 돌진했으나 내부 진입에는 실패, 경비병과 교전 후 현장에서 모두 사살
 - * 테러범과 교전 과정에서 파키스탄 경찰 2명과 영사를 방문한 파키스탄인父子가 사망
- 한편, 무장 반군조직 발루치스탄 해방군(BLA)이 테러배후를 자처, 이들은 중국이 추진 중인 「일대일로 사업*」 반대와 함께 “중국은 압제자이며, 우리 재원을 착취하고 있어 공격을 지속할 것”임을 주장
 - * '13년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‘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’으로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 및 무역에 대해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경제벨트 프로젝트
- 이에, 파키스탄 당국은 BLA 지휘관이 인도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‘인도 정부가 테러를 지원하거나 알고도 묵인 했을 수 있다’는 의혹을 제기
 - ⇒ 파키스탄 內 중국인에 대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우리 국민을 중국인으로 오인한 테러 발생 가능성에도 주의 필요

< 발루치스탄 해방군(Baluchistan Liberation Army) >

- (목 표) 파키스탄·이란·아프간內 발루치스탄족 독립국가 건설('99년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·파키스탄('06년), 미국·EU('19년)
- (연계세력) 탈레반, 발루치공화군(BRA), 발루치해방전선(BLF) 등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(이란 및 아프간 접경 산악지역)
- (주요활동) ① '00.7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재래시장에서 폭탄테러 37명 사상
 ② '10.12 발루치스탄 주지사 차량 폭탄테러로 주지사 등 8명 사상
 ③ '13.7 발루치스탄주 해군기지 공격으로 14명 사상

